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7.0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칩법 2.0 공개, 수요 확대·상용화 강화에 초점(7.2)

- 집행위는 지난 6월 3일, 기술 주권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3년 EU 칩법 (Chips Act)의 개정안인 칩법 2.0(Chips Act 2.0)를 발표
- 기존 칩법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, 개정안은 수요 측면 지원을 대폭 강화
- 또한 DARPA(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) 방식*의 그랜드 챌린지를 도입해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을 최종 수요 시장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

* DARPA 모델은 전문 프로그램 매니저가 특정 분야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, 성과가 낮은 과제는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

○ 유럽, 'ARPA형 혁신기관' 네트워크 확대 움직임(7.2)

- 미국의 DARPA를 모델로 한 ARPA형(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) 혁신기관이 유럽 각국에서 잇달아 설립
- ARPA형 기관은 특정 기술 분야의 R&D와 혁신을 지원하고,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신기술과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
- 지난 6월,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공동 의뢰한 [보고서](#)는 프랑스가 독일의 [SPRIND](#)를 모델로 한 혁신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

○ 미국 빅테크, 연구 개발 투자에서 호라이즌 유럽 압도(7.7)

- 2025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(Alphabet) 한 곳의 R&D 투자만 EU의 5배 이상, 격차는 해마다 확대
- 2025년 통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AI, 우주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호라이즌 유럽과의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남
- 지난 10년간 글로벌 연구 개발 투자 지형도 독일 자동차 기업 중심에서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크게 바뀜

※ OECD의 SWIFTBeRD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분석

- (기타) ▲유럽의회 EU Inc 악용 방지 장치 강화 추진(7.2) ▲ESA, 유럽의 우주 자율성 바탕으로 더 큰 도약 가능(7.2) ▲EU, ERA 강화에 5,550만 유로 투자(7.3)